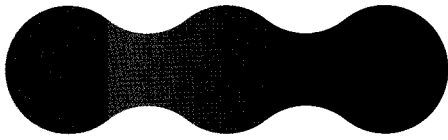


21세기 초우량 글로벌 방위산업 전문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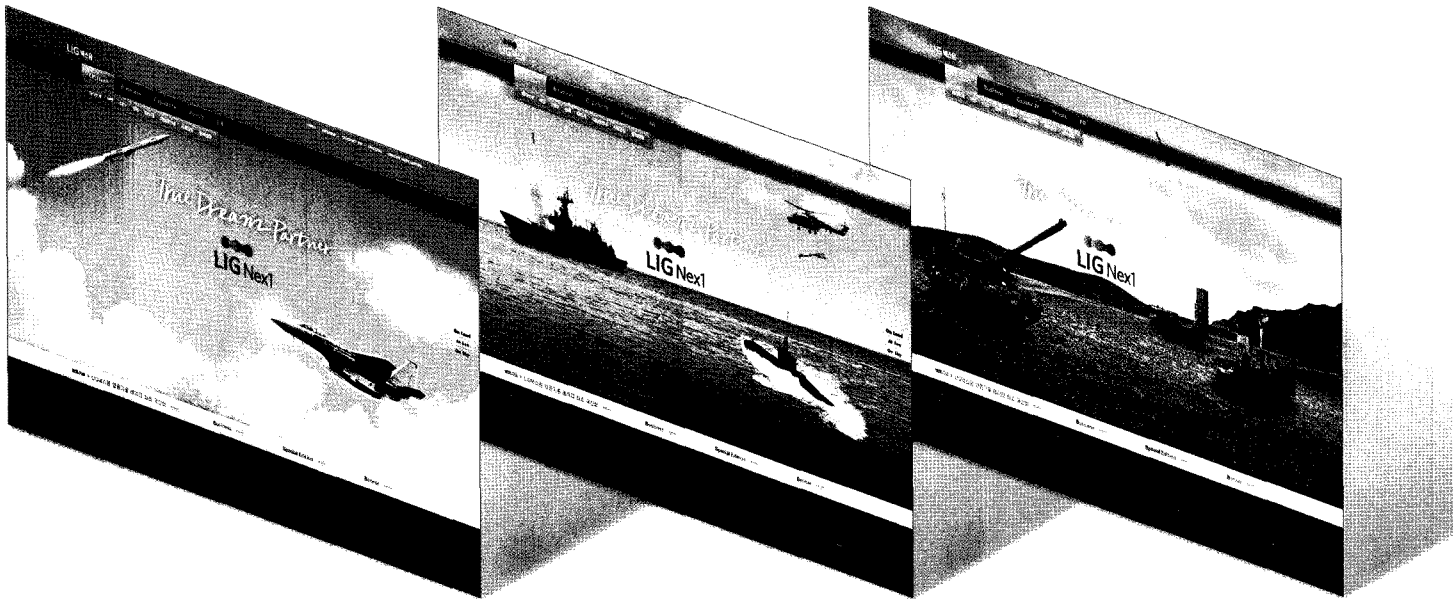
LIG 넥스원

수많은 방위산업체 중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기업이 있다.
바로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LIG넥스원(주).
지난 1976년 금성정밀공업으로 설립된 이후 금성정밀,
LG정밀, LG이노텍, 넥스원퓨처를 거쳐
2007년 4월 현재의 이름으로 새롭게 출범한 LIG넥스원을 소개한다.



LIG넥스원의 과감한 변신

LIG넥스원(www.lignex1.com, 대표이사 구본상, 이효구)은 국내 대표적인 방위산업 전문기업이다. 유도·수중무기, 레이더, 지휘통제체계, 전술정보통신체계, 전자전 및 항공전자장비 등 각종 첨단 무기체계의 연구개발을 통해 자주국방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수많은 방위산업체 중에서도 LIG넥스원이 돋보이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 바로 지칠 줄 모르는 도전정신 그리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신감이다. 이러한 자신감을 반영하듯 지난해 9월 LIG넥스원은 2020년까지 Global Top Tier(선두그룹) 진입이라는 중장기 목표 달성을 위한 '창조와 열정으로 우리의 꿈을 실현하는 True Dream Partner' 라는 야심찬 계획을 대내외에 천명했다. 또한 지난해 10월 20일부터 개최된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2009' 및 '국제 해양 방위산업전 2009' 일정에 맞추어 회사 국, 영문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여 공개했다. 공개된 LIG넥스원의 홈페이지는 하늘, 땅, 바다를 아우르는 바탕화면에 각각의 최신 무기체계가 등장하는 역동적인 파격적인 화면 구성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재미없고 볼 것 없는 홈페이지는 이제 그만

최근 LIG넥스원 홈페이지를 방문해본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말한다. “방위산업체 홈페이지가 이렇게 멋있어?” 지난해 가을 개편된 LIG넥스원의 홈페이지는 방문객으로 하여금 흥미와 재미를 동시에 느끼게 만드는 과감한 구성으로 방위산업체에 대한 일반인들의 편견을 여지없이 깨버렸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특징은 일목요연한 홈페이지 구성을 통해 방위산업 자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일반인들의 이해를 돕고 눈높이를 맞춘 것. 실제 LIG넥스원의 홈페이지는 2008년 대한민국 방위산업 매출 1위, 국내 유일 육해공 전 분야의 무기 체계에 대한 통합 솔루션(solution) 제공, 전체 인력 중 42%에 이르는 R&D 인력과 끊임없는 연구인력 지원과 양성, 최고의 연구개발제품을 성공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첨단 장비와 시설 보유 등에 대한 내용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주도로 LIG넥스원이 참여하여 개발하고 2007년 조선일보 선정, 2008년 국방과학연구소가 선정한 10대 명품무기를 소개하는 명품관과, 대한민국 방산 전시회에 참가했던 LIG넥스원의 다양한 모습들을 소개하는 전시 홍보관을 구성하여 LIG넥스원만의 차별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만큼 1976년 금성정밀을 모태로 하여 30여 년 간 대한민국 방위산업을 이끌어 온 LIG넥스원의 역사를 대한민국 국방사와 접목시킨 LIG넥스원 역사관은 일반인의 이해도와 흥미를 높이는 데 부족함이 없다. 홈페이지 개편을 주도적으로 이끈 LIG넥스원 전략기획팀 황치복 상무는 “이번 홈페이지 개편은 차별화된 구성으로 국

LIG넥스원 홈페이지는 하늘, 땅, 바다를 아우르는 방위산업에 각각의 최신 무기 체계가 등장하는 역동적인 조각적인 화면 구성으로 명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방관련 종사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쉽고 친숙하게 방위산업을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되었다”며 “이번 LIG넥스원의 홈페이지 전면 개편은 단순히 회사를 홍보하는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의 국방력을 전 세계에 자랑하고 세계 유수의 방산업체에 홍보하여 수출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방위산업 영업맨의 힘

LIG넥스원의 진취적 기상은 구성원들의 우수한 능력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LIG넥스원에서 항공사업을 담당하는 AEW개발담당 전중석 과장이 세계 최대 방위산업체 중 하나인 BAE 시스템스의 덕 올리버(Dick Oliver) 회장으로 부터 ‘2009 BAE Systems Chairman’s Award’를 수여받은 것. ‘BAE Systems Chairman’s Award’는 1996년부터 19년에 걸쳐, 한 해 동안 BAE사 전체 사업 중 가장 훌륭한 성과를 낸 사업(사업관리자 포함)을 대



상으로 금(Gold), 은(Silver), 동(Bronze)메달을 수여하는 데 전 과장은 동메달을 수상했다. BAE 시스템즈 약 10만 명의 직원과 수천 개에 육박하는 전 세계 사업과 사업담당자를 대상으로 시상하는 상인만큼 동메달 수상도 대단한 일이지만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번 BAE 회장상 수상이 외부 협력업체 직원으로는 최초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증석 과장은 “제가 2004년부터 T-50과 관련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BAE 시스템즈와는 T-50에 장착되어 비행제어 업무를 담당하는 비행조종컴퓨터(FLCC)와 속도, 고도, 무장정보 등 각종 비행정보 및 임무정보를 조종사의 전방 상단에 제공하는 전방시현장치(HUD)사업을 함께 하면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를 인정받은 것 같습니다”라고 말한다. 실제로 전 과장은 지난해에만 수차례에 걸쳐 총 400억 원에 이르는 해외구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과정에서 철저한 사전 준비와 서로가 만족하는 합리적 계약체결을 주도해 BAE 시스템즈로부터 그간 노고를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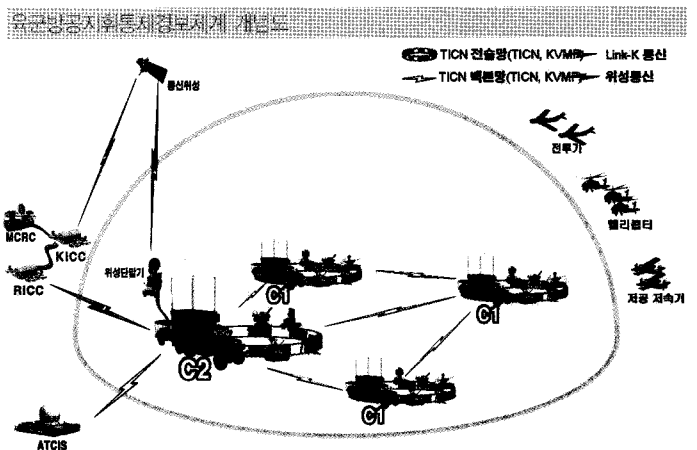
TA/FA-50 항공기용 레이더 국산화

지난 9월 LIG넥스원은 이스라엘 ELTA사(대표 Mr. Nissim Hadas)와 국산 항공기인 TA-50 및 FA-50에 장착될 레이더에 대한 국산화 계약을 체결하는 협약식을 갖고 본격적인 첨단 항공기용 레이더 국산화에 나섰다. 이번 TA-50 및 FA-50 레이더 국산화 계약 협약식은 LIG넥스원과 이스라엘 ELTA사의 두 CEO가 만나 양사간 방산기술 교류 및 해외 수출의 방산협력 확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속적인 교류를 약속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크다. 국내 최초로 실시되는 첨단 항공기용 레이더 국산화 사업은, 원제작사인 이스라엘 ELTA사의 레이더 핵심 기술을 이전받아 LIG넥스원이 국산화하는 것으로, LIG넥스원은 TA-50과 FA-50 레이더를

2009년부터 국산화 개발에 착수하여 2010년에 TA-50 항공기 레이더부터 납품할 예정이다. 이 사업을 바탕으로, 차후 T-50 등 국산 수출용 항공기에 국내에서 생산된 레이더를 탑재하면 양산가격 절감을 통한 T-50의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용 창출은 물론 외산 항공기용 레이더 대체 개발을 통해 최신 항공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이에 대해 LIG넥스원 구본상 사장은 “한 기업의 이윤 창출을 넘어, 국위를 선양하고 자주 국방력 제고에 기여했다는 데 자부심을 가진다” 며 “이번 레이더 국산화 사업은 국산 레이더 개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시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육군방공지휘통제경보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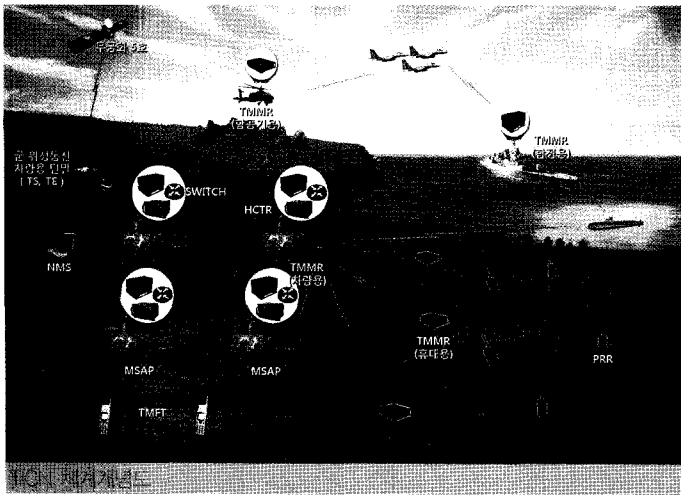
육군방공지휘통제경보체계 (C2A: Command Control & Alert, 이하 C2A)는 이군부대 및 중요 시설을 보호하여 전투력을 보존하고 행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군단/사단지역 레이더, 방공무기를 통합운용하는 지휘통제체계다. LIG 넥스원은 독자적으로 개발한 C2A를 전시하여 방공 지휘통제체계(방공대대 통제기 및 방공중대 통제기), 방공무기체계 및 탐지체계, 통신체계를 모의하여 네트워크 기반의 군단급 방공임무 통제능력을 시험할 예정이다. 이 체계는 육군의 방공작전단계인 탐지 및 식별, 경보전파 및 사격통제, 추적 및 격파 단계의 방공운용에 대한 전 과정을 자동 및 수동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개발예정이다.



방공운용단계	1. 방공운용계획 및 준비	2. 탐지 및 식별	3. 방공운용 (경보전파/사격통제)	4. 추적 및 격파
수행체계	ATCS C2 C1	MCRC 3D 레이더/TPS-830K 천마비호	C2 C1	천마비호 신공(P-SAM) 발칸/오리온
체계주요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항경기 및 적전구상 방위발전 방공운용계획 수립 방공무기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러함공기 조기탐지 표적 식별 표적추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보전파 (자율수동) 사격통제 향력추려 (자율수동) TEWA (자율수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표적추려 교전 결과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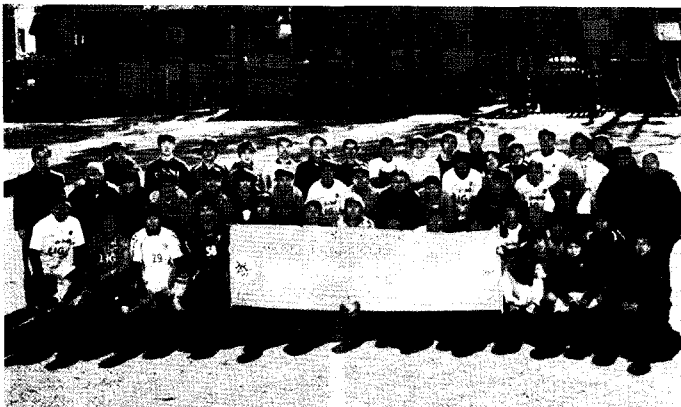
TICN TMMR(Tactical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TMMR)

TICN 사업은 다원화된 군 통신망을 일원화하고 다양한 전장 정보를 적시적소에 실시간으로 전달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지휘통제 및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미래형 군 전술 종합정보 통신체계로, '12년 이후 현용 전술통신 체계(SPIDER)의 제한 사항을 해소하고 미래 네트워크 중심전에서 통합전투력 발휘 보장을 위한 고속 대용량 정보통신 기반체계 개발 사업이다. 이번에 전시될 TMMR은 실시간 지휘통제를 위한 제대/전투원간 무선통신체계로써 하나의 무전기에 다수 모드(AM, FM, WNW등)를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다.



사회적 기부에도 솔선수범

LIG넥스원은 국내 방위산업체 중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기업의 재능기부에도 솔선수범하고 있다. 가까운 예로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2009 행사장에 당시 2006년부터 꾸준히 후원을 해온 장애인 국가대표팀인 '곰두리 축구단' 초청, 장애인 참여가 활발하지 않은 방위산업전시회를 소개하고, 다양한 체험 행사를 실시



지난 2006년부터 LIG넥스원이 꾸준히 후원을 해오고 있는 장애인 국가대표팀 '곰두리 축구단'

LIG 넥스원

■ 연혁

- 1976년 2월 금성정밀공업으로 출범
- 1995년 1월 LG정밀주로 상호 변경
- 2000년 5월 LG이노텍(주)으로 상호 변경
- 2004년 7월 넥스원(주)으로 출범
- 2007년 4월 LIG넥스원(주)으로 상호 변경

■ 대표이사 : 구본상, 이호구

■ 2007년 매출 : 6,500억원 / 2008년 매출 : 8,500억원

■ 사업장 :

- 본사 (서울 역삼동)
- 연구개발본부 (경기 용인 대진)
- 생산본부 (경북 구미, 경기 평택)

■ 주요 사업 분야

- 방위산업

유도무기체계, 수중무기체계, 전술/위성통신, 레이더, 전자광학장비, 무인기 센서, 국방로봇, 정보전자전, 해군전투체계, 수상합전투체계, 잠수합전투체계, 경계/감시체계, 항공전자, 사격통제장비, 국가교정기관

하기도 했다. 2006년부터 4년에 걸쳐 '곰두리 축구단'을 꾸준히 후원해온 LIG넥스원은 장애인 축구 선수권 대회 등을 후원하고 및 사내 Informal Group인 축구 동호회와 장애인 곰두리 축구단의 친선경기 등을 추진해왔다. 또 다음 취업포개기 카페에 방위산업체에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이벤트를 개최해 구직에 대한 상담과 방위산업체에 대한 안내를 했다. LIG넥스원 구본상 사장은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하여 사회와 다양하게 소통하는 방법을 모색하려 노력하고 있다"며 "LIG넥스원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대표 방위산업체인만큼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뿐만 아니라 일반인과의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마련하여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데 일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